갔노라! 보았노라! 느꼈노라!

吾等(오등)은 玆(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자주민)임을 宣言(선언)하노라.

100년전 외침을 기억하는가?
우리 민족의 자주를 외치었던 그날의 피끓는 감동을 나는 다시 떠올린다.
2000만 불자들의 하나됨을 그려낸 '시민과 함께하는 불교문화대축제'는 우리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평등과 자비의 감동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켰다.
혹자는 불교인의 참여를 걱정하며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다.
일백년전 3.1운동 역시 그러한 불안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의식있고 생동하는 불자들은 달랐다.
지역과 계층을 초월하여 이 나라의 독립과 발전을 외치었던 그분들의 정성처럼
종단을 초월하여 부처님의 가르침 깃발 아래 모여든 불자들은 신앙과 수행, 법등명과 자등명을 밝혀들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기는 축제의 시간을 보여 주었다.
근래에 수많은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를 만끽하며 함께 노래한 적이 있었던가?
부산에서 시작된 불자들의 단합과 평등, 자비의 노래가 불교계의 3.1운동으로 이어져
제주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대전에서 강원도에서 들불처럼 일어나 한국불교의 중심인 조계사에서
장엄하게 회향되는 모습을 그려보는 것은 필자만의 희망인가!
유사이래 불교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민중과 국가를 밝히는 한줄기 빛이었으며
작금의 국가적 대립과 혼란을 우리 불자들의 하나된 발원으로 평등과 자비의 빛을 전국, 전 세계에 펼쳐 가는
시발이 되기를 간절히 발원한다.
그리고 이런 소중하고 뜻 깊은 자리를 만들어 준 부산불교연합회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에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 부산에서 현대불교신문 열독자 합장 -

